

일본 유산 인정 제1호 근세 일본의 교육 유산군

— 배움의 정신과 예절의 근원 —



JAPAN HERITAGE

日本遺産



아시카가 학교에 전해지는 국보 한서



시즈타니 학교 강당 내부



고도칸에서의 무도 연무



간기엔 그림 (공익재단법인 히로세 자료관 소장)

스토리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근대 교육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일본에서는 지배자층이었던 무사 외에도 많은 서민들이 글을 읽고 쓰거나 셈을 할 수 있었고 예절을 익히는 등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신들의 자제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이었던 번교와 향교(향학), 사숙, 서민들의 초등 교육 기관이었던 데라코야 등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던 근세 일본의 교육 유산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유산은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등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자세가 현대 일본인에게도 국민성으로 남아 있으며 배움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도칸과 짝을 이루는 공원 가이라쿠엔(이바라키현·미토시)

미토시/아시카가시/비젠시/히타시 교육유산 세계유산등록 추진협의회

(사무국: 미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부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추진실무)

우 310-8610 이바라키현 미토시 주오 1-4-1

[TEL] +81-29-306-8132 [E-mail] isan@city.mito.lg.jp [HP] <http://manabukokoro.jp/>

\ HP /



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21

근세 일본의 교육 유산군

—배움의 정신과 예절의 근원—

구성 문화재



시즈타니 학교 (오카야마현 비젠시)
1670~1870

오카야마의 번주였던 이케다 미쓰마사가 백성들을 위해 설립했던 학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민을 위한 공립 학교입니다. 오카야마번 외에도 타지역에서 온 입학생이 있었을 정도로 일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향학)입니다.



아시카가 학교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1871

설립 연대는 불분명하나, 예수회 선교사였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반도(옛 간토 지방의 명칭)의 대학'으로 소개했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간기엔 (오이타현 히타시)
1817~1897

유학자였던 히로세 단소가 설립한 근세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숙입니다. 입학에 위한 조건으로 신분, 학력, 나이를 묻지 않는 '산다쓰호(三奪法)'를 도입하여 일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학했습니다.



고도칸 (이바라키현 미토시)
1841~1872

미토번의 9대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설립한 번교입니다. 일본 최대의 번교로서 유학과 역사, 의학, 무도 등 다양한 학문의 기회를 제공했던 종합 대학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간기엔을 지탱했던 교육 도시 마메다마치(오이타현 히타시)

일본 유산(Japan Heritage)이란

지역의 역사적인 매력과 특색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스토리를 문화청의 규정에 따라 '일본 유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토리에 필수적인 유무형의 문화재군을 해당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비하고 활용함으로써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